

미국의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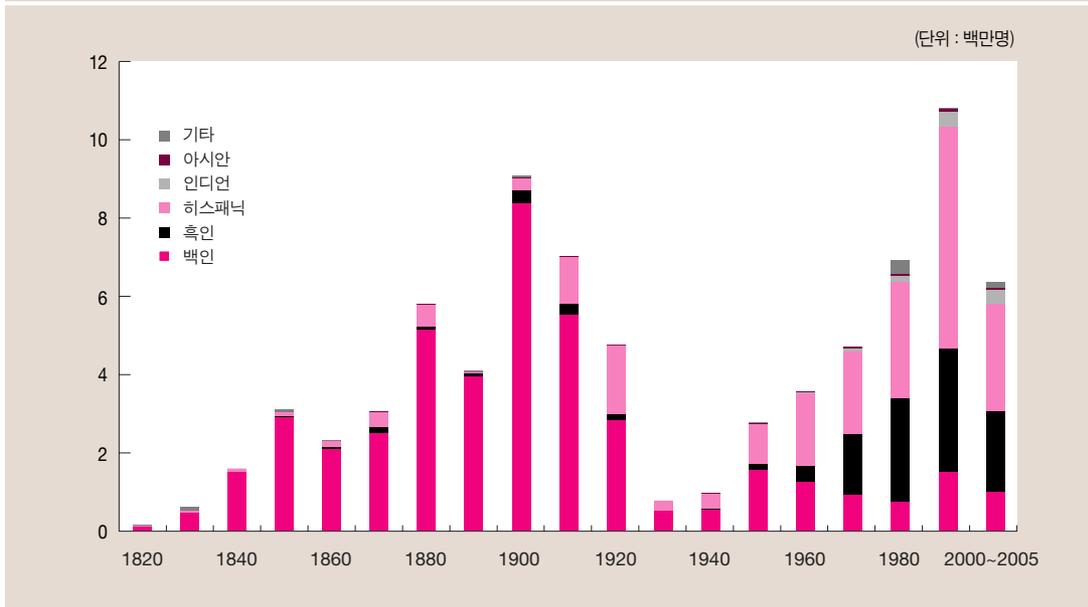
장효욱 (Welch Consulting Economist)

미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로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도 이민정책,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민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올해 전국적인 이민자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700마일에 이르는 담장설치를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민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 개 황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으로의 이민자의 유입은 19세기 후반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900년대에는 10년간 800만 명을 넘는 합법적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그림 1). 이러한 증가세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급격하게 하락하여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10년간 각각 1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이민자가 유입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이민자들의 유입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1980년대에 들면서 큰 폭의 유입을 보이기 시작하여 10년간 60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신규로 유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사상 최대인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민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21세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600만 명이 새로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다.

[그림 1] 미국의 합법적 이민자 추이 : 대륙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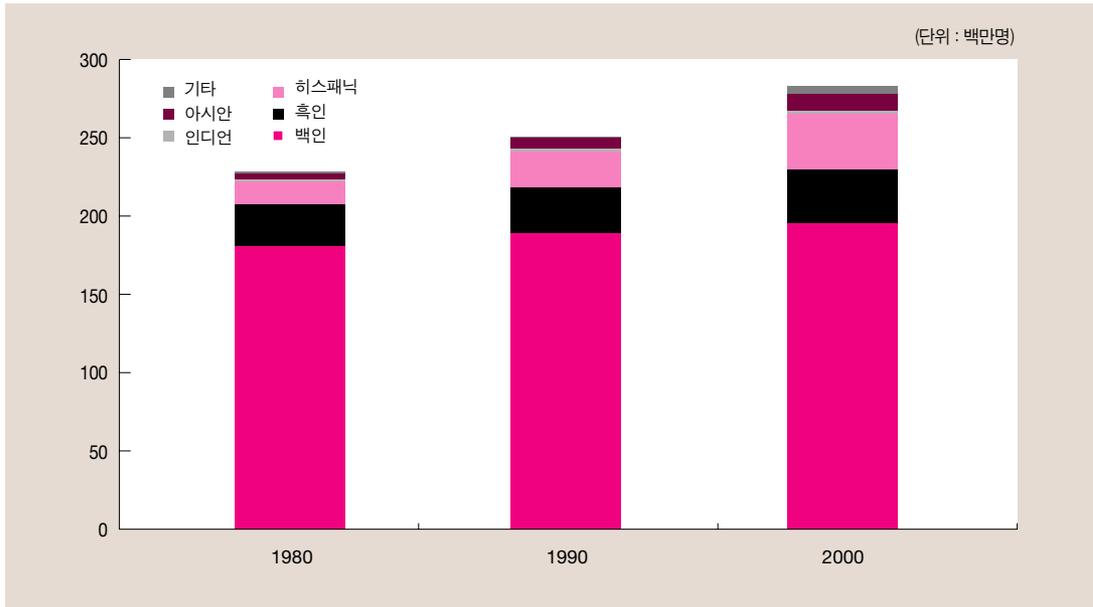
자료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한편 이러한 이민 추세를 이민자의 출신지역별로 나누면, 19세기에는 유럽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세기 들어서는 유럽인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미주와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멕시코의 비중은 1980년대에 전체 이민자의 16%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해서 28%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이민 급증세는 주로 인근 국가,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멕시코가 단연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민 추세의 변화에 힘입어 미국의 인종별 인구비중 또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 2). 히스패닉의 인구비중은 1980년에는 단지 6.4%에 그쳤으나 1990년에는 9.0%, 2000년에는 12.5%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아시아계의 비중 또한 1.5%, 2.8%, 3.7%로 아직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백인의 경우 1980년의 79.6%에서 1990년에는 75.6%, 2000년에는 69.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흑인의 경우 1980년에 11.5%, 1990년에는 11.7%



[그림 2] 인종별 인구비중



자료 : 미국 통계청 (US Census Bureau).

로 백인에 이어 제2의 인종그룹이었으나 2000년에는 12.1%로 히스패닉에 이어 제3의 인종그룹으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대규모 이민자 유입은 단지 미국의 총인구 증가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인종분포 등 인구의 구성면에서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낳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정식으로 서류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에 관해서는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이민제도

미국의 이민제도는 공민권운동이 확산되었던 1960년대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전까지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던 국가별 쿼터제도에 의해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1965년에 의회에

의해 중단되었다. 대신 의회는 가족주의에 우호적인 쿼터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비자가 가족들의 초청등을 근거로 발급되었으며 이 제도는 현실을 법제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민제도는 캐나다, 호주 등 이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사뭇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다가 1980년대가 되어서 대규모 이민자들의 유입을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외국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가족들의 초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 부류로, 이러한 이민자들은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취업을 통한 이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급 노동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H1-B 비자는 199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행되며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6년간 체류를 허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입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출신이다. 세 번째는 난민들의 이민이다. 네 번째는 추첨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이다. 다섯번째는 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이 해당된다.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대략 1,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최근의 논쟁

최근 미국에서 멕시코인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과연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미국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과연 이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있다.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에 대해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인구의 3분의 2가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비율의 미국인들이 합법적 이민은 좋은 것이며 가족들은 그들의 친척들을 초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곤혹스러운 사실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존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이 없이는 중산층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들이 없다면 농작물 수확인력의



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호텔들은 청소인력의 부족으로 객실관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거리에서는 택시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체류자들의 존재는 고용주들에게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체류자들 개인들에게는 비록 저임금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본국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는데 불법체류자들 대부분은 극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엄청난 금액을 불법체류자들의 유입을 막는 데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막상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딱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느슨한 법집행은 기업인들이나 여타 이민자 유입을 선호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민자들의 유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인들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업종에서 일을 하므로 이민자들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이민자들이 유입되지 않는 도시에는 정원사가 없거나 택시기사가 없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반대측에서는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미국 내에 한정된 수의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 또한 이민자들은 기존 미국인들에 비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최근의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문제와 함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한 문제들도 최근의 이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측에서 강조하는 이슈들이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논쟁의 핵심에는 이민의 증가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정적, 긍정적, 또는 중립적인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측에서는 이민자들의 증가가 특히 저학력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미국의 소득분포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일반적인 임금은 상당히 더디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학력 비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이 일정 정도 이러한 현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2000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인구 중 13%를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28%는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8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민과 임금의 상관관계는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금은 노동측면만이 아니라 자본설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이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민의 증가는 노동공급을 가져오게 되어 임금하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의 증가는 자본의 투자수익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고용주들에게 추가 자본투자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의 증가가 추가적인 노동수요를 창출하므로 이민의 증가가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알기 어렵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민자들은 상대적인 임금구조는 변화시킬 수 있다.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들 중심의 이민자들이 기존의 비숙련 노동자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상대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만약 이민자들이 기존 노동자들과는 보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미국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민자들의 유입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조정속도와 이민자들과 기존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경쟁을 하는지 또는 보완적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겠다.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버클리 대학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교수는 미국의 도시들 중 로스앤젤레스처럼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들과 인디애나폴리스처럼 이민자들이 거의 유입되지 않는 도시 간 임금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민자들의 임금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려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시간 이민자들의 유입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간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에서는 이민자들이 임의적으로 정착도시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민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정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도시간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균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들의 유입이 기존 노동자들의 이주를 야기하여 다른 도시에서의 비숙련 노동자 공급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켜 다른 도시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 교수는 이민자들이 기존의 비숙련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가설을 검정해 본 결과, 별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민문제는 그리 큰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이민에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논리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그보다는 인종적 편견이나 사회적 혼란 등이 그들이 이민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멕시코인들이 키가 좀더 크고 피부색이 좀더 하얗다면 최근의



이민문제는 보다 쉽게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의 조지 보하스(George Borjas) 교수가 가장 대표적이다. 보하스 교수는 미국 전체의 임금통계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경력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그룹의 노동자들은 쉽게 대체되지 않지만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이민자들과 기존 노동자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가정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임금 추이 분석을 통해서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평균임금이 3% 하락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고교중퇴 미만의 노동자 그룹의 임금을 8% 하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투자증가의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변화가 없고 고교중퇴 미만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보하스 교수의 주장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는 이민자들에 의한 효과 말고도 최저임금, 세계화, 노조의 영향력 감소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이민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재분배 효과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들의 소득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이민자들은 기존의 미국 노동자에 비해서만 기술 숙련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이민자들에 비해서도 숙련도가 낮다면서, 미국이 점수제도에 근거한 이민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민자들의 모국이 이민자들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해 실시한 투자의 효과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점수제도를 통해서 고급인력 위주의 이민유입을 유도하게 된다면 최근 이민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틴계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라도 인종차별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정치권에서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볼로냐 대학(University of Bologna)의 잔마르코 오타비아노(Gianmarco Ottaviano)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UC Davis)의 지오바니 페리(Giovanni Peri) 교수는 보하스 교수의 방법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기존 노동자들과 이민 노동자들간에도 대체효과가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두 부류는 결과적으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멕시코 이민들은 정원사, 청소, 건축 등에 종사하는 반면, 기존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목재 채벌업 등

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대체성을 고려할 경우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고졸 미만 학력자들의 임금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단지 0.4%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민자들의 유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7년에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의회의 요청에 의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경제에 100억 달러의 순혜택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미국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국립학술원의 추정은 단지 이민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그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와의 차이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민자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술들과 더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가능에서 비롯되는 이득 및 이민자들에 의해 창업되는 신규 기업들을 통한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범죄자들의 유입 등 이민자들의 유입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다른 비용들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순효과는 어떤지 알기 어렵다고 보겠다.

한편 경제 전반적인 효과와는 달리 사회 구성 그룹간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민을 통한 분명한 승자는 합법적 이민자들로 보이는데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연구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주하는 남성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즉각적인 이익은 약 1만 달러에 해당하며 평생을 통해서는 약 30만 달러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록 고학력 노동자들도 인도 출신 프로그래머의 유입이 없었다면 더욱 높은 소득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보다 분명한 패자는 가난한 비숙련 노동자들이라고 국립학술원의 연구는 주장한다. 동 연구는 이민자들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고졸이하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3%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실증적 이민관련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이민 초창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로,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여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전세계 인구의 90%가 자신의 출생지에서 반경 100마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으로 오기를 택한 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결정과 행동을 보인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700마일에 걸친 담장을 설치하는 조치와 같은 강경책과 동시에, 불법이민자들의 한시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초청노동자제도(guest-worker programme)와 같은 유화적인 조치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초청노동자제도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적으로 합법적인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거주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농업지역에서 수확기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농장주들 및 기업주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민정책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의원들 중에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유화적인 이민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기존의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화당측에서는 주요 지지층 중 산업계에서는 초청노동자제도를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보수층은 국경에 담장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당론을 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개인이 지역구의 이해에 따라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미국은 건국 이전부터 끊임없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지속되어 왔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최근의 이민제도에 관한 논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개는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경우 비난의 화살이 이민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의 이민제도에 관한 논란의 핵심 역시 결국은 기존의 미국인들에게 급증하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끊임없이 이민확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이민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극히 최근에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주목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동질적인 우리 사회에 이질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융화되어 가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회복한 의회에서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는 상당히 관심 가는 상황이다. **KLI**

참고문헌

- Borjas, George J.(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Borjas, George J. and Lawrence Katz(2005), *The Evolution of the Mexican–Born Workforce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11281, April.
- Borjas, George J.(2006), “Immigration in High–Skill Labor Markets: The Impact of Foreign Students on the Earnings of Doctorates”, February.
- Card, David(2005), *Is the New Immigration Really So Bad?*, NBER Working Paper 11547, August.
- *Economist*, “A Survey of the United States”, March 11, 2000.
- *Economist*, “Myths and Migration”, April 6, 2006.
- Hanson, Gordon H.(2006), “Illegal Migration from Mexico to the United States”, March.
- *Los Angeles Times*, “Still No Slam Dunk on an Immigration Bill”, November 23, 2006.
- *Los Angeles Times*, “Making Sense of Immigration”, March 26, 2006.
- Lowenstein, Roger(2006), “What Is She Really Doing to American Jobs and Wage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July 9, 2006.
- Ottaviano, Gianmarco I. P. and Giovanni Peri(2006), “Rethinking the Gains from Immigra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US”, January.
- Ottaviano, Gianmarco I. P. and Giovanni Peri(2006), “Rethinking the Effects of Immigration on Wages”, August.